



LIG넥스원, 서울현충원서 '애국 시무식'

LIG넥스원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애국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구본상 LIG 회장을 비롯해 LIG넥스원과 (주)LIG, LIG시스템, 휴세코, 이노와이어리스 등 계열사 임직원 약 90명이 참석해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했다.

/LIG넥스원



신한라이프, 올해 '경영전략회의 개최'

신한라이프는 지난 2일 '트러스트 퍼스트, 밸런스 그로스 (TRUST FIRST, Balanced Growth) 2026'이란 전략 슬로건 아래 내실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자 '2026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신한라이프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4가지 핵심전략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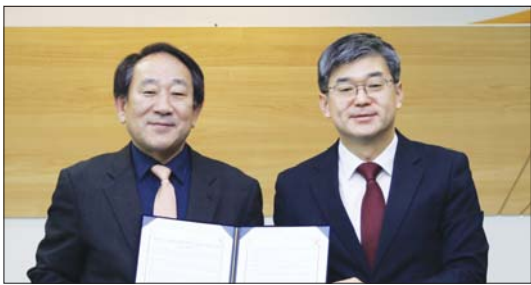
/신한라이프



캠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기술혁신기업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기술혁신기업 공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전국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들의 업무 역량을 연계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캠코



철강협회, AI·SW협회와 AI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AI·SW협회)와 '철강산업 AI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 및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철강협회

GC녹십자웰빙

정시영 신임 연구개발본부장 선임

GC녹십자웰빙은 신임 연구개발본부장에 정시영 박사를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정시영 연구개발본부장은 약학 전문가다.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연구개발(R&D), 사업개발(BD), 인허가(RA)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정 본부장은 한미약품에서 제제연구 및 해외 RA, 라이선싱 및 개발 전략 업무를 수행했으며, LG생명과학에서는 임상개발팀 과장을 맡아 임상 개발 및 CRM 업무를 담당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상하이 임정 청사 복원... 삼성, '송산 프로젝트' 재조명

삼성물산 직원 자발 제안 복원 추진
사라질 위기농인 임정청사 보존 계기
韓·中 수교 이전 민간차원 사업 진행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찾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으나 삼성물산 직원들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지난 1993년 복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조명되고 있다.

6일 삼성에 따르면 중국과 정식 수교(1992년 8월) 이전인 1990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삼성물산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가 흔적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때 복원된 청사는 1926년 7월부터 임시정부가 항저우로 옮겨간 1932년 4월까지 약 6년간 임시정부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오랫동안 민가로 방치되면서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다.

이에 삼성물산은 1990년 12월 '잘못 소개된 우리의 역사'라는 제목의



복원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내부. 상·하단 복원직후(1993년).

책자를 발간한 것을 계기로 문화사업 확대를 위해 사내에서 '이벤트 현상공모'를 실시했다.

당시 중국상하이출장에서 돌아온 유통본부 영업담당 이재정 부장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복원 건'을 제안했고,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이 본사 경영회의를 통과하며 '송산(嵩山) 프로젝트'로 명명됐다. 한국의



상·하단 최근 모습.

/삼성

정통성을 드높이고 선인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였다.

삼성물산은 당시 문화부, 독립기념관의 협조를 얻어 1991년 중국 상하이시 측과 복원합의서를 채택했다.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계단, 창틀 등 세세한 부분을 손질했다. 수소문 끝에 1920년대에 사용하던 탁자,

의자, 침대 등을 수집해 회의실, 부엌, 접견실, 집무실, 숙소 등을 임시정부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했다.

1993년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맞춰 진행된 준공식에는 김구 주석의 아들 김신 전 교통부 장관,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춘선 전 광복회장, 윤봉길 의사의 손자 윤주웅 씨, 최창규 독립기념관장, 삼성물산 신세길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주웅 씨는 당시 삼성물산에 보낸 감사편지에서 "할아버지가 비감한 마음으로 수시로 드나들었을 임시정부 청사가 복원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참으로 다행히 이 건물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게 노력해 준 삼성물산과 독립기념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상하이 임정 청사 복원사업과 함께 중국 내 산재해 있는 한국 문화재 실태조사를 시행해 1400여건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이를 종합해 중국과 국내에서 관련 책자를 발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U+, '119메모리얼런 티셔츠' 판매

수익금 전액 순직 소방관 가족 전달

LG유플러스가 '119메모리얼런 기념 티셔츠' 판매 수익금으로 순직 소방관의 희생을 알리고 유가족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119메모리얼런 기념 티셔츠는 지난해 11월 2일 열린 순직 소방관 추모 마라톤 대회 '119 메모리얼런' 행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행사 당시 참가자와 현장 방문객들 사이에서 추가 구매 요청이 이어지면서, LG유플러스는 티셔츠 추가 판매를 결정했다.

티셔츠는 통신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LG유플러스 모바일 커머스 'U+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3만3000원이며, 300장 한정으로 판매된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방가족 희망나눔 재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G유플러스가 제작한 추모 티셔츠의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그간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AI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한 순직 소방관 목소리 복원, 추모 마라톤 '119 메모리얼런' 개최 등 소방관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향후에도 소방청과 협력해 소방관 복지와 교육, 추모를 위한 지원과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병오, K-패션·첨단기술 융합 위상 부각

〈패션그룹형지 회장〉

李 대통령과 방중 경제사절단 참석

패션그룹형지는 최병오 회장이 지난 5일 중국 현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간담회와 국빈 만찬 등 핵심 일정에 패션 기업인으로 유일하게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허리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국내 주요 1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패션 기업의 대표 자격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술 기업의 리더로서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 사업 비전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최 회장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



형지 최병오 회장이 패션 기업인으로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 주최 국빈만찬 참석해 중국 대기업들과 교류했다.

/패션그룹형지

장이자 형지의 창업주로서 K-패션의 성장사를 소개하고, 중국 '빠오시니아오' 그룹과 합작한 '상해엘리트'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풀무원, '음성 두부공장 견학' 참가자 모집

사계절 테마형 체험 운영

풀무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두부 생산시설을 갖춘 풀무원 음성 두부공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고객 체험 '2026 음성 두부공장 견학'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풀무원은 2008년부터 충북 음성에 위치한 두부공장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무료 고객 체험 '풀무원 팩토리'를 운영해 왔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

품 생산·물류 현장 관람은 물론, 제품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이후 중단됐던 개인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한 식문화와 풀무원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재개되는 개인 대상 대면 공장 견학은 사계절에 맞춰 시즌별 테마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협력담당관 황다은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전보)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계홍 △민간임대정책과장 조성태

부음

▲이기환씨 별세, 이재영(전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씨 부친상=6일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3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40분. 031-249-8444